

“가족과 함께 전통혼례복도 입고 떨잠도 만들고”

상주박물관, 겨울방학 체험교실 운영

상주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가족체험 교실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를 상주박물관 내 전통의례관에서 운영했다.

이번 가족체험교실은 초등학생 2~6학년이 포함된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과 22일 하루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총 33가족 8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한복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본 뒤, 전통혼례복인 관복과 활옷을 입어보았다.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문화 교육 자료로 개발된 여성들의 장신구인 떨잠을 만들었는데, 남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좋았다.

전옥연 상주박물관장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철 기자 jsc@kbyn.co.kr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 상주박물관 가족체험교실

【상주】 상주박물관(관장 전옥연)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체험교실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를 전통의례관에서 운영했다.

하루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가족체험교실에는 초등학생 2~6학년이 포함된 총 33가족 8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한복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본 뒤, 전통혼례복인 관복과 활옷을 입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문화 교육 자료로 개발된 여성들의 장신구인 떨잠을 만들기도 했는데, 남자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좋았다.



가족체험교실에서 참가자들이 전통혼례복인 관복과 활옷을 입어보고 있다.

/상주박물관 제공

전옥연 상주박물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민들이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

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상주박물관 ‘겨울방학 가족체험교실’

상주박물관(관장 전옥연)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가족체험교실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를 상주박물관 내 전통의례관에서 운영했다. 이번 가족체험교실은 초등학생 2~6학년이 포함된 가족을 대상으로 2017년 1월 15일(일)과 22일(일) 하루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33가족 81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한복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본 뒤, 전통혼례복인 관복과 활옷을 입어보았다. 상주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근기자

상주박물관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

겨울방학 가족체험교실 열어
전통혼례복 착용 등 '인기'

상주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가족체험교실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를 상주박물관 내 전통의례관에서 운영했다.

〈사진〉

이번 가족체험교실은 초등학생 2~6학년이 포함된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과 22일 하루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총 33가족 8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한복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본 뒤, 전통혼례복인 관복과 활옷을 입어봤다.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문화 교육자료로 개발된 여성들의 장신구인 띠를 만들었는데, 남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



우 좋았다.

상주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정철규 기자 dnfv825@hanmail.net



상주박물관은 박물관 내 전통의례관에서 가족체험교실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를 운영했다.

상주박물관 “전통 의복 체험하며 조선시대 멋쟁이로 변신 했어요”

초등생 2~6학년 포함가족대상
겨울방학맞이 가족체험교실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 진행
총 4회 걸쳐 33가족·81명 참가

상주박물관(관장 전옥연)은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체험교실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를 상주박물관 내 전통의례관에서 운영했다.

이번 가족체험교실은 초등학생 2~6학년이 포함된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과 22일 하루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총 33가족 8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한복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본 뒤, 전통혼례복인 관복과 활옷을 입어보았다. 이후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문화 교육 자료로 개발된 여성들의 장신구인 뿔잠을 만들었는데, 남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좋았다.

상주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창연기자

전통혼례복 차려입고 ‘찰칵’ 상주박물관 한복체험 인기

33가족 81명 참가

상주박물관(관장 전옥연)은 겨울 방학을 맞아 가족체험교실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를 상주박물관 내 전통의례관에서 운영,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가족체험교실은 초등학교 2~6학년이 포함된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하루 2회씩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33가족

8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한복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전통혼례복인 관복과 활옷을 입어보며 즐거워했다.

상주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우리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투호 · 굴렁쇠 굴리며 가족과 추억 만드세요”

27~ 30일까지 설 연휴 4일간

상주박물관, 민속놀이 체험장 운영

전통문양 팽이 무료 나눔 행사도

상주박물관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상주박물관 전통놀이체험공간에서 설날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장을 운영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체험으로 명석위에서 던지는 장작웃놀이를 비롯한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팽이놀이 등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놀이가 마련됐다.

또한 전통문양 팽이 무료 나눔 행사 및 팽이 색칠놀이가 진행되며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고 연휴기간동안 전시실을 무료로 개방돼 출향인 및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의 교육·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에 앞서 상주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체험교실을 전통의례관에서 운영한 바 있다.

'나는야, 조선시대 멋쟁이'를 타이틀 아래 열린 가족체험교실은 초등학교 2~6학년 자녀를 둔 가족들의 대상으로 지난 15일과 22일 1일 2회씩 총 4회에 걸쳐 총 33가족 81명이 참여해 조선시대 한복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전통혼례복인 관복과 활옷도 착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오 기자



상주박물관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상주박물관 전통놀이체험공간에서 설날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장을 운영한다.